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착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공적 조사·안전 기원 개수제 실시

해양교류의 거점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개수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수중발굴조사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가 13일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곳으로 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의 거점이었다.

특히,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선화봉송고려도경'에 따르면 선유도는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된다.

고군산군도 해역의 수중조사는 지난 2020년 문화재 발견신고 이후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상감청자 및 청자다발, 조선시대 분청사기 및 백자,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도자기, 난파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 및 닻돌,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 숯 등 500여점의 유물이 확인됐다.

특히 숯돌로 추정되는 석재의 경우 그동안 선상용품으로 1~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발굴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를 통해 조사해역 인근에 고선박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는 10월까지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군산군도의 역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산시의 문화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13일 4층 세미나실에서 SNS시민기자단 '전통아띠' 발대식을 가졌다.

전통문화 가치·우수성 널리 알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 SNS시민기자단 '전통아띠' 출범

전통문화 행사를 대내외에 알릴 시민기자단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3일 4층 세미나실에서 SNS시민기자단 '전통아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임명장 및 기자단증 수여식, SNS시민기자단 활동 사업 소개, 한국전통문화전당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SNS시민기자단은 드론 프리랜서를 비롯,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대학생 등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기자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전당과 관련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거나, 전당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후기를 작성하는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전당은 SNS시민기자단의 활동에 따라 매월 소정의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SNS시민기자단 활동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한운성의 리얼리티'展 익산서 열린다

익산예술의전당서 5월 7일까지 개최

익산시가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은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한운성의 리얼리티'展을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도립미술관이 소장품을 대여해 주고 익산예술의전당이 전시를 기획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1년 전북도립미술관에 수증된 한운성 작가의 작품 131점 중 24점을 엄선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운성 작가는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교육자로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한국 형상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현재까지도 작품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의 본질적 모습에 초점을 두고 시대,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연작 작품인 매듭, 상황, 과일, 디지로그, 꽃 등의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한운성 작가의 예술관과 오늘날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추구한 근원적인 메시지에 접근해보고



자 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립미술관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gallery숨 '이보영 개인전' 개최

이보영 개인전이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gallery숨에서 열린다. gallery숨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PLATFORM에 참여했던 47명의 작가 중 15명이 다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PLATFORM AGAIN'이라는 기획 아티스트 개인전을 펼치며 그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PLATFORM은 서로 다른 개성의 작가들이 숨이라는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또 다른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다.

작가에 따르면 작업은 자연과 인간에 관심을 갖고 그 안의 내밀한 성찰로 이뤄지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채집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자연을 불러 넣어 인간과 자연이 이웃하며 소통하는 삶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전통 한국화 재료인 한지와 안료를 가지고 작가만의 세밀하고 푸르른 색으로 화면 안을 재해석해 표현하고 있다. '상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뤄지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따뜻함,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영상 제작 가능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7개 팀을 뽑아 영상 1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콘텐츠 기획, 저작권 등을

주제로 한 역량강화 워크숍과, 연말 우수콘텐츠 선정을 통해 총 3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내국인 5팀, 외국인 2팀을 모집하며, 전북관광을 주제로 제시된 핵심 및 자유과제(총 3개) 영상 제작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콘텐츠 주제는 핵심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뉘며, '핵심주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북 테마 여행, 재단과 관련된 전북 문화·관광 콘텐츠로 제시된다. '자유주제'는 전라북도 친환경 ESG, 위케이션, 치유관광 등 전라북도 관광콘텐츠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영상자료로 진행되며, 콘텐츠 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및 완성도, 창의성 및 전달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는 26일까지 웹하드(https://only.webhard.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11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됐다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충남문을 열고, 전주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이 사업 선정을 통해 4월 17일부터 전주 효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초등학교 57개 학급이 이론학습, 탐방, 체험 등 심화과정을 거쳐 활동을 이어가고, 중등 자유학기제 수업도 5학급에 1,6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학습 탐방 체험의 심화구성으로, 실질적인 체험학습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풍남



문 입체 퍼즐 조립하기 외에도 복원된 전라감영의 입체 터널북 만들기 등으로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구조와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은희 관장은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 정신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며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 학습의 장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문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